

광주 연극의 봄 ... 다섯송이 꽃이 핀다

지역 극단들의 치열한 경연장인 제30회 광주연극제가 오는 23일부터 31일(오후 7시30분)까지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올해부터 기존 전국연극제가 대한민국연극제로 이름을 바꿔 진행됨에 따라 광주연극제 대상팀은 오는 6월3일부터 충북 청주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연극제에 광주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광주는 제1회 전국연극제에서 극단 '시민'이 '소작자'로 대통령상을 받았었다. 지난 2014년에는 '극단 '얼·아리'가 '발톱을 깎아도'로 진달래 피네의 '취선록' 이후 17년만에 대통령상을 수상했었다.

경연 첫 작품은 극단 유피씨어터의 '가족 ㄹ 탄생'(23일)이다.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살아가는 4남매 이야기를 통해 현재 우리 모습을 들여다본 작품이다. 매년 면접에서 떨어지는 효미, 술에 취해 포크레인을 몰고 국회를 가려다 경찰서에 갇힌 대학생 효재, 누리 예산 문제로 일자리를 잃게 된 유지원 교사 효진, 직장 내 성차별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를 차리려는 효선 4남매의 각각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극단 대표 김균형씨의 원안을 양태훈씨가 각색하고 연출을 맡았다. 정효진, 김연지, 이슬, 김재서, 박영진씨 등이 출연한다.

극단 시민은 '보이지 않는 섬과 머구리'(25일)를 무대에 올린다.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무인도로 끌려온 라서방. 새우잡이 양사장 일당 밑에 들어와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며 4명의 머구리(장수부)들과 섬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간다. 사고로 쓸모 없어진 동

제30회 광주연극제 23~31일 광주문예회관

대상팀은 대한민국 연극제 광주 대표로 참가



지난해 광주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시민의 '나이트' 공연 모습.

- 23일 극단 유피씨어터 '가족 ㄹ 탄생'
- 25일 극단 시민 '보이지 않는 섬과 머구리'
- 27일 극단 아트컴퍼니 원 '경중비사'
- 29일 연극문화공동체 DIC '강의 노래'
- 31일 극단 진달래 피네 '순애의 순정이 없다'

료를 가져 없이 죽이는 양사장의 모습에 치를 떨던 머구리들은 태풍 때문에 식량 보급이 끊기자 라서방은 이웃한 머구리

섬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간다. 오재호 작 김민호 연출로 박규상·임성재·이승현·정낙일씨 등이 출연한다.

극단 아트컴퍼니 원은 27일 '경중비사'를 무대에 올린다. 경중이 재워하던 시절을 배경으로 경중과 영조, 소론과 노론이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음해하는 과정을 통해 정치인들의 허상을 그린 작품이다.

극단 대표 원광연씨가 희곡과 연출을 맡았다. 이기인, 최진영, 한종신, 이정진, 홍혁진, 이영환씨 등이 출연한다.

연극문화공동체 DIC는 29일 오후 7시30분 '강의 노래'를 공연한다.

호남 제일의 곡창 지대지만 강물이 범람해 농사를 죄다 쓸어가 버리기에 해마다 제방을 쌓아보지만 무너지고 또 무너진다. 강물에 처녀를 생매장해 그 위에 독을 쌓으면 강물이 넘치지 않는다는 속설에 마을 사람들은 강물에 부모를 잃은 드들이를 생매장시키려 한다. 드들이의 사랑과 사람들의 허무한 욕심이 그려지는 이야기다.

정문의 작, 심성일 연출로 이현숙·송민중·김장준·오혜리씨 등이 출연한다.

극단 진달래 피네 공연작은 '순애의 순정이 없다'(31일)이다.

최영화 호남대 교수가 희곡과 연출을 맡았으며 양준호·강용복·최현진·김소아·이승현씨 등이 출연한다.

신파극 '이수일과 심순애'를 비튼 작품으로 물질만능주의에 물든 세태를 고발하고 있다. 과연 순애가 요즘 시대 여성이라면 순정으로 수일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가정해본 작품으로 권력이 주는 무상함, 과물같은 자본의 힘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원. 문의 062-523-72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리뷰 / 시립극단 '신시야화'

1935년 총장로 향수에 '흠뻑'



1935년으로 떠난 시간여행은 흥미로웠다. '오빠는 풍각쟁이'를 부르는 소년공연은 분위기를 돋우고, 흠뻑이 나와 줄줄이 떨어진 동생들을 위해 가슴의 꿈을 잡고 다방 레자로 일하는 봉금이, 일본인 양복쟁이 아라서 '시다'로 일하는 판수, 남몰래 사랑을 키워가는 극장 간판쟁이 달포 등 다양한 이들의 삶은 바로 우리 이웃의 이야기로 다가왔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펼쳐지는 총장로 5가 풍경은 아련한 향수를 전했다.

지난 19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광주시립극단 '신시야화(新市夜話)'는 어느 때보다 장년·노년층 관객이 눈에 띄는 공연이었다. 그들은 작품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즐겼다.

1930년대 총장로 5가를 재현한 무대에서 펼쳐지는 작품은 최선진(광주극장장, 유은학원 설립자), 추양임(추암인 상점 사장) 등 실존 인물과 당시 빈번했던 화재 사건, 광주극장 개관 등 실화에 연극적 상상력을 더해 볼거리를 제공했다. 작은 에피소드들이 이

어지고 군데 군데 유쾌한 대사가 어울리면서 공연 시간 1시간 30분은 빠르게 지나갔다. 또 '나는 열일곱살이예요' 등 당시 유행했던 가요와 음악들도 분위기를 띄운다.

특히 악극단을 따라 나서고 싶지만 꿈을 접어야 하는 봉금이 부르는 '사의 찬미'는 마음에 남는다. 그밖에 극의 중심을 잡는 최선진 역의 노희설 등 배우들의 연기도 좋다.

일단 목사 최홍종, 작곡가 정윤성 등 '인물' 중심으로 풀어냈던 '광주 100년사 시리즈'가 다소 무겁고 설명적인 데 반해 '신시야화'는 관객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었다.

하지만 연극적인 재미와 완성도 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았다. 무엇보다 다소 밋밋한 희곡이 아쉬웠다. 작품에 감동이 없으면 모든 등장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열식'으로 전개되다 보니, 감정이 고조되는 순간이 거의 없이 딱딱 끊겨버렸다. 또 음악과 대사가 겹치는 부분에서 대사가 거의 들리지 않은 점도 문제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교육철학·인문학·서양철학...광주시민인문학 강좌

내달 10일까지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

실천 인문학을 지향하는 광주시민인문학이 30기 강좌를 연다. 내달 10일까지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정규강좌와 SEMI강좌로 나뉘어 진행된다.

정규강좌(오후 7시30분)는 교육철학, 인문학, 서양철학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월요일에는 박주희 교수가 '누스 바움의 지혜를 빌리다-공부를 넘어 교육으로'를 주제로 시민을 만난다. 화요일은 인문학입문 시간에서 명혜영 교수가 '이 사회의 불편한 진실-여성혐오를 거론하다'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수요일은 '피에르 브루티와 사유의 지평'을 주제로 문학이론 스테디를 한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서명원 교수와 안철 클래식 음악해설가가 각각 '가다머의 선입견과 인지과학'과 '클래식 음악과 친화하기Ⅷ-영화 속 명장면과 음악Ⅱ'를 주제로 강의와 감상이 이어진다.

토요일(오후 5시)과 일요일(오전 9시)에는 SEMI강좌 '영화 reading'과 '인문여행'이 열린다. 무비토크 시간에는 '상상력에 응답하라 SF영화' 감상과 토론이 있을 예정이고 '인문여행'은 '진해군항제' 등을 찾아 힐링 시간을 갖는다.

수강료 학생 1만원, 조합원 2만원, 일반회원 3만원.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문의 010-4624-1201.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이성자 동화작가 신작 '팽귤 날다' 펴내

한국 아동문학상(2015년) 수상자인 동화작가 이성자 씨가 신작 '팽귤 날다'(책내용 창작)를 펴냈다. 동화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경쟁'보다 '함께'와 '배려'의 가치에 초점을 둔 동화는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 어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화 속 주인공 박우석은 관절이 굳어 뒹뒹뒹 걸어야 하는 아이이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주인공에게 어느 날 친구들이 병문안을 온다. 친구들은 서로 도우미를 자청하고 박우석을 돕기로 한다.

친구들은 박우석을 아픈 아이가 아닌 편한 친구로 대한다. 더러 팽귤이나 오줌 싸개라고 놀리기도 하지만 속마음은 아픈 친구와 더 가까워지려는 의도다.

책 제목이 암시하듯 팽귤은 지느러미처럼 생긴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는 조류다. 그러나 추위를 이겨내고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 그들의 배려와 나눔으로 집단생활을 영위해간다.

이 작가는 "수년 전 병원생활을 하면서 희귀병을 앓는 한 아이를 만난 것이 작품을 쓰게 된 계기가 됐다"며 "아픈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른들과도 '함께'의 가치를 나누고 싶었다"고 의미를 말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광주시향 2016청소년음악회 협연자

선효정·김소연·조수영·나유빈 선정

광주시향교향악단이 2016청소년음악회 협연자를 확정, 발표했다.

최근 광주시향 연습실에서 열린 오디션 통해 선효정, 김소연, 조수영, 나유빈씨를 협연자로 선정했다.

광주·전남 출신 관현악전공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오디션에는 총 17명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선발자는 오는 9월 10일 열리는 광주시향교향악단 '2016청소년음악회' 무대에 협연자로 서게 된다.

한양대에서 첼로를 전공하고 있는 나유빈씨는 제56회 호남예술제 전체 대상 수상했으며 전남대에서 플루트를 전공하고 있는 선효정씨는 CBS전국 청소년 고등학생 음악경연대회 1회 등을 차지했다. 또 서울대에 재학중인 바이올린 전공 김소연씨는 2015음악교육신문사 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했으며 전남대에서 비올라를 전공하고 있는 조수영씨는 2012서경대 콩쿠르에서 관현악부분에서 1위 입상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커피숍 매매

북구 우산동 상업지역

▣ 유동인구 많음, 시설완비, 현 상업중
(커피, 식사, 맥주 판매가능)

보증금 200만 월세 100만

커피숍 매매

전대 정문 모아 A.P.T 후문 앞 코너

▣ 보증금 1,000만 월세 50만

시설 완비, 코너자리, 원룸촌 내 위치
(커피, 식사, 맥주 판매가능)

(※ 주인직매) 010-6670-9800

첨단지구 8층 상가, 건물매매

(사무실 및 오피스가 건물)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

▣ 감정가 (분할시) → 56억

▣ 용자 → 26억 가능 (최대 31억 가능)

▣ 보 3억 월 3,000만

매가 → 38억

1층 (상가) 120평
(정원, 잔디밭 사용가능)

2층~7층 (고급 오피스텔 룸) - 56개

8층 41평
(주택겸사무실)

(옥상 풀 사용가능, 정원, 경치 좋음)

010-7384-7800

법률경매

(주) 대신경매

(특수물건 추천)	수익성 상가 (주택)	경매교육
1. 동구 계림동 (다가구 원룸) (토 90평, 건 203평) (1층~4층 총 18개) 임대수익, 투자 가치 적합 계림동 홈플러스 남측 근처, 재개발지역 부근 감정가 6억3천 → 최저가 3억5천	1. 북구 중흥동 (토 46평, 건 50평) ※ 토지 평당 180만원 1층~2층 주택 (2층 주택 월세 30만 가능) 감정가 1억2천 → 최저가 8천5백만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전 교육등고 수익창출가능
2. 광산구 우산동 (숙박시설) (토 150평, 건 444평) (1층 - 식당, 2층~5층 룸 50개) 하남 시영아파트 북측 인근 위치 - 상가지대 감정가 11억3천 → 최저가 7억9천	2. 남구 양림동 (토 40평, 건 25평) 학강초등학교 북서측, 근간차량가능 감정가 7천1백 → 최저가 7천1백	매주 수요일 (오전, 오후반) 주말반 (오전, 오후반)
3. 서구 쌍용동 (다가구 원룸) (토 74평, 건 131평) (1층~3층 총 12개) 아파트 밀집지역 감정가 5억 2천 → 최저가 3억 6천만	3. 동구 산수동 (토 42평, 건 25평) ※ 토지 평당 150만원 단층주택, 다용도실 약 6평 별도있음 감정가 6천8백만 → 최저가 6천 8백만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4. 남구 방림동 (근린시설) (토 207평, 건 333평) 삼일 아파트 단지 내, 주변 아파트단지, 코너자리 감정가 9억8천 → 최저가 5억5천	수익성상가 (근린주택)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5. 서구 쌍용동 (숙박시설) (토 90, 건 364평) 1층~5층 총 37개, 운전역 3분거리 감정가 12억 → 최저가 5억5천	1. 북구 일곡동 (토 52평, 건 72평) ※ 1층 점포 2층 주택 코너자리 감정가 1억9천8백 → 최저가 1억9천8백	원스톱 강의
6. 북구 중흥동 (모텔) (토 81평, 건 298평) 월수익 약 900만 가능, (5층 총 32개)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3억6천7백	2. 북구 연제동 (토 84평, 건 155평) ※ 1층~2층 상가, 3층 주택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5억 2천	직원구합니다.
	3. 동구 계림동 (토 55평, 건 175평) ※ 총 침포 2중~3중 사무실 5중주택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3억2천	부동산, 경매, 배우실론, 부동산 자격증이신분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십시오 환영합니다.
	4. 동구 중흥동 (토 34 평, 건 44평) (1층 식당, 2층 주택) 차선도로 접 우리은행 광주지점 부근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010-6834-4800 010-6832-9700